



11월, 깐달건달 캄보디아 점수증

캄보디아 깐달건달, 11월 일정

Mon	Tue	Wed	Thur	Fri	Sat	Sun	
		1	2	3	4	5	6
	영어수업	CDP 한국어수업	영어수업	까리따스 중간평가 한 송별파티	이온몰에서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자유시간	
7	8	9	10	11	12	13	
대청소 영화수업 팀 회의	CDP 헤밍헤임 축구장 ~	독립기념일(휴일)	CDP 영어 수업 (겨울왕국 더빙) 팀 회의	까리따스 가드닝 HANG OUT (따프마오 축제)	시아누크빌		
14	15	16	17	18	19	20	
시아누크빌		CDP 한국어수업	CDP 영어 수업 팀 회의 (팀규칙 개편)	CDP (티.쓰라이닉 집) 풍선아트	대청소 중간평가준비	프놈펜대학교 소풍	
21	22	23	24	25	26	27	
CDP (드러곤 수확) HANDICRAFT (RING)	크메르수업 KOREAN (LIFE STYLE)	KOREAN	CDP 크메르수업 ENGLISH	LIBRARY	대청소	마을 안에서 자유시간	
28	29	30					
CDP HANDICRAFT	CDP HANG OUT (시험날이라 사람 없음)	CDP KOREAN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형님.

까달까달 ----- 3

물끓음 신마적 '썩썩' ----- 4

양주동 사시미 '미익' ----- 9

범어리 모함마 '꼬꼬' ----- 13

양산 피바다 '망고' ----- 17

형님들의 삼시세끼 ----- 20

리얼 삼시세끼 ----- 21

우리 YDP한다 ----- 27

새로운 Atti Time ----- 28

우리 CDP도 한다 ----- 37

CDP 친구들 ----- 38

밥 만들기 프로젝트! ----- 43

제기구역, 캄보디아 ----- 46

푸엣슬렝 박물관 ----- 47

시아누크빌(Sihanoukville) ----- 50

시아누크빌, 두번째 이야기 ----- 54

개인 메시지 ----- 58

간달 건달

쑤쑤가 경험한 '쑤쑤'

제가 이번에 소개할 팀원은

바로~~~

우리 팀의 맏이인 '쑤쑤'형이다. :)

쑤쑤형은 우리 팀의

'맏이'이자

'아버지'이자

'유스 통역관'입니다.

지금부터 형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큐!



이름 : 쑤쑤(본명:김양수)

나이 : 만 24 세

취미 : 미드 보기, 운동하기,

유스들과 놀기,

페이스북 하기

특기 : '고기'를 잘 먹는다!

자세한 소개는 이제부터~~~

형의 이름은?

쑤쑤

'쑤쑤'가 무슨 뜻이냐 하면?

'쑤쑤' = '힘내자!' (파이팅!)의 뜻입니다.

정말 잘 지었어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기운이 펄펄 넘칩니다. ㅎㅎ

형은 언제나 활기차고 기운이 넘치며 항상 밝습니다.

그래서 그 기운이 우리 팀원들한테 전달되어

우리 팀 분위기가 정말 좋아집니다.



밝게 웃읍시다.

형은 유스들과 친합니다.

우리가 캄보디아에 온 초반에

형은 유스들이랑 친해지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지만 손짓 발짓하면서 서로 소통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스들이 형만 찾는다는... ㅎㅎ)



Youth 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는 형!
형이 운동을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살을 빼려고 하는 거 같은데...ㅎㅎ
저녁이 되면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거나
집 앞 현관에서 아령을 들며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몇 달간 운동을 한 결과 지금은 약 15kg 이나 빠졌다고 합니다.
아주 대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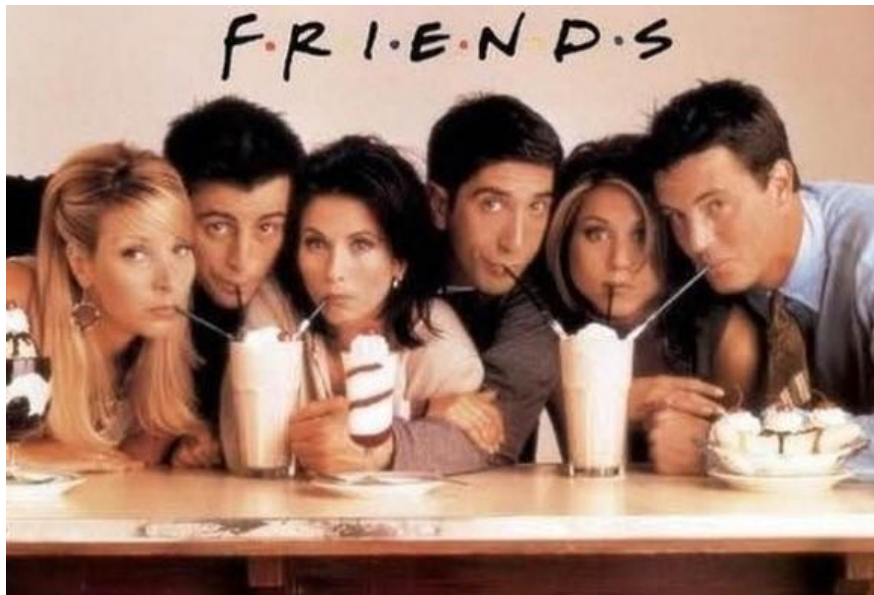
이 아령을 들고 열심히 운동합니다! :)
형은 고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자주(?) 고기를 찾는다고 해야 하나? ㅎㅎ
형이 워낙 고기를 좋아해서... ㅎㅎ
그런데...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다가 배탈이 나서
곤욕을 치른 적이 다반사입니다.



형이 직접 만드는 돼지 불고기!(왼쪽) 뭐든 잘 먹는 수수형(오른쪽)

형이 이곳에 와서 새로운 취미가 생겼습니다.
바로

미드!



Friends

미드 중에서도 'Friends'

형이 영어 실력을 늘리려고 미드를 보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미드에 재미를 느껴서 매일 같이 미드에 빠져 있습니다.

형은 일도 아주 잘 합니다! ㅎㅎ

우리가 농사일을 할 때 아주 적극적으로 잘 합니다.

형이 열심히 해준 덕분에 우리가 일찍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ㅎㅎ



다 같이 수수!!!

더 많은 형의 소개를 하려 했지만...
워낙 이전에 형에 대한 소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건..... 형의 인생 샷?

앞으로도 우리 수수형 힘내고 파이팅 하길 바랄게~

수수!!!(fighting)

쭈쭈가 보는 '메익'

내가 마지막으로 소개 할 우리 팀원은
동갑내기이자
쏘 쿨한 여자이며
누구보다 캄보디아 생활에 잘 적응한
도희를 소개하려고 한다.

종수나 승연이도 소개했듯이 나도 캄보디아에서 도희를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소개할 부분은 당연히 치마인 것 같다.
도희는 정말 많은 치마와 바지를 샀다.
날마다 새로운 치마를 입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심지어 END POVERTY 활동에서 치마 4 개를 교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아 보인다.
하지만 그 치마는 도희에게 정말 어울리는 것 같고
지금은 캄보디아 옷을 입지 않은 것이 더 어색 할 정도이다



도희는 우리 팀에서 아주 많은 것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팀의 총무역할을 하게 되면서 까리타스와의 의사소통도
저절로 담당하게 되었다.

라온아띠 영어 '상'의 실력 답게 영어도 잘한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도희의 캄보디아 실력이다.
시장과 마트를 좋아하는 도희는 시장과 마트에서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한다.

스스로도 많은 공부를 하고 그 공부한 것을 생활에 쓰니
실력이 안늘래야 안늘 수가 없어 보인다.



도희는 일도 잘한다. 그리고 열심히 한다.
아무리 무겁고 힘들어도 계속해서 한다.
그게 우리팀의 하나의 스타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한다.



계속해서 하는 건 일 뿐만이 아니다.
도희는 빨래를 아주! 엄청 ! 열심히 한다.
길면 2 시간도 빨래를 한다.

하나씩 빨래판에 빨고 행구고 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길어야 30~40 분인데 하는 걸 보고 있자니 내가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 이다.

엄빠이라고 불리는 사탕수수 음료수를 좋아하고
과일과 빵, 우유 등 먹을 것도 좋아하지만
급하게 먹는 것이 아닌 천천히 조금씩 자주 먹는 편이다.
천천히 먹는 다는 것은 나에겐 정말 어려운 일이라
이것도 내가 신기해 하는 것 중 하나이다.

도희는 사진찍는 것을 좋아한다.
우리팀의 사진작가라고 봐도 무방하다.
지금까지 올린 사진의 대부분이 도희 사진이고
이쁜 것, 먹을 것, 활동 등에서 카메라로 열심히 셔터를 누른다.
도희가 사진찍는 걸 보고 있을 때면



참 즐거워 보인다.

어느덧 3 달이 지난 지금
서서히 도희라는 친구를 알아가면서
나는 많은 것을 도희에게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
도희가 있었기에 안정적으로 캄보디아 생활을 한 것 같다.
기준이 명확했고 정확했으며 누구도 불공평 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도희가 앞장서서 실천 한 것 같다.
남은 2 달도 지금처럼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같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우리팀이 행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앞장서 주길 바라면서!
화이팅!

By 쑤쑤

망고가 말하는 쫄쫄

마지막으로 내가 소개할 사람은 종수 오빠다. 우리 팀에 없어서 안될 만능 재주꾼 종수 오빠. 세명 중에서도 아직까지 내가 알아갈 점이 가장 많은 사람이다. 오빠와의 예사롭지 않았던 첫 만남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한다.



1. 첫인상

오빠의 첫인상은 상당히 강렬했다. 때는 7 월, 라온아띠 합격 후 16 기가 처음으로 다 함께 만나는 날이었으며 한 달가량의 국내 훈련을 시작하는 날이었다. 각자의 짐을 한가득 백팩에 짊어지고 우리는 철원에서 침묵 도보순례를 시작했다. 만난 지 30 분도 채 되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걸으라는 지시에 난감했던 것도 잠시, 온몸을 강타하는 따가운 여름 햇볕에 나는 속수무책 에너지를 잃어갔고 땅만 보며 오로지 다리를 움직이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열아홉 명의 새로운 얼굴들을 살펴보고 알아갈 여유 따위 없었다. 그렇게 한참을 걸어 도보순례의 중간에 다다라 이제는 내가 걷는 건지 다리가 저절로 움직이는 건지 판단이 되지 않을 무렵, 갑자기 대뜸 어떤 남자가 나에게 다가와 내 짐을 대신 들어주겠다고 물어왔다. 백팩에 다 담지 못한 여분의 짐이 담긴 내 에코백을 가리키며 남자는 말했고, 나는 말 한마디 섞어보지 못한 사람의 갑작스러운 호의에 아주 많이 당황했다. 만난 지 하루도 되지 않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싫었던 나는 나름대로 정중히 호의를 거절했다.

만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은 사람에게 짐을 들어주겠다고 다가온 바로 그 남자가 바로 종수 오빠였다. 오빠는 내가 땀을 흘리며 인상을 찡그리고 짐을 들고 가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짐을 들어주겠다고 물었던 거라고 한다. 훗날 팀원들과 서로의 첫인상을 얘기하며 들어보니 나름 정중하게 사양했다던 나의 기억과는 달리, 뒤에서 지켜본 양수 오빠의 기억으로는 내가 온갖 차가운 표정을 지으며 질겁했고 오빠는 속으로 뭐 저런 싸가지없는 서울 여자애가 다 있냐고 생각할 정도로 매몰찼다고 한다. 양수오빠의 말을 듣고보니 괜스레 오빠에게 미안해졌었다. 다시 돌아간다면, 웃으면서 가벼운마음으로 짐을 맡길텐데 흐흐

2. 배려왕

종수 오빠는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다. 내가 요리를 하고 있으면 “도와줄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줘”, 쟁기질을 하고 있으면 “나랑 바꿀래?”, 내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내가 들어줄까?” 라고 먼저 물어온다. 어떻게 저렇게 자신의 많은 부분을 희생할 수 있을까 신기할 정도로 오빠는 항상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한다. 배려 사관학교가 있다면, 종수 오빠는 수석입학에 수석 졸업까지 엘리트 코스를 거친 장학생이었을 것이다. 캄보디아에 오면서 나의 작은 목표가 있었다면, 종수 오빠에게 배려 사관학교에서 야자시간에 땡땡이치는 법을, 피병을 부리며 양호실에 누워 농땡이 부리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오빠는 쉽게 물들지 않는 배려 사관학교 최고의 모범생이다.



3. 웃는 얼굴

오빠는 웃는 게 참 예쁘다. 웃을 때 작은 눈이 반달처럼 굽어지면서 살 속으로 사라졌다가 웃음을 멈추면 갑자기 다시 구멍이 뚫린다. 남자의 눈웃음을 좋아하는 여자들에겐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문제는 본인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 정도?

4. 행주 삶는 남자

오빠는 깔끔하다. 처음에 오빠가 현관을 물청소하자고 할 때에는 “아, 고양이 똥이 정말 싫은가 보다.” 했는데 대대적인 대청소를 했던 어느 날엔 손가락과 젓가락, 행주를 끓는 물에 넣고 소독을 하고 있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최근에는 대야에 빨랫감을 적셔 놓기만 하고 안 빨고 있길래, “아 오빠가 넣어놓고 까먹었나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빨래를 불리고 있었던 거였다고 한다. 그의 청결의 끝은 어디일지 궁금하다.

5. 느낌상 그래, 보통적으로, 아 뭐라 말해야 되지

같이 있다 보면 오빠는 특정 단어를 참 자주 쓴다. “보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와 같은 사무적인 말은 농사나 건축처럼 자신이 잘 아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할 때에 자주 쓴다. 반면, 오빠는 주장이나 생각 같은 것을 말할 때에 “~~한 느낌? 그냥 느낌상 그래” 라거나 때때로 표현하기 어려워지면 말끝에 “아 뭐라고 말해야 되지”라고 덧붙이며 마치 조각하지 않아 뭉툭한 석고상 같은 말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종수 말하기 사전이 있다면 사전이 그다지 굵진 않지만, 한 개의 말이라도 수십 가지의 뜻을 갖고 있을 것이다. 때때로 우리는 종수 사전의 유의어 홍수 속에서 그의 말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되물을 때가 있다. 처음엔 그럴 때마다 마치 소통의 막다른 길을 만난 것처럼 막막했는데, 점점 오빠를 알아가면서 도희 언니나 내가 오빠의 번역기가 역할을 하곤 한다.



빙구같은 종수

6. 집사

오빠는 우리 집의 집사이다. 청소를 하면 오빠는 책상이나 식탁에 널브러진 잡다한 소품들을 깔끔하게 어딘가에 정리해놓는다. 그래서 항상 무언가 필요해지면 우리는 종수 오빠를 찾는다. 게다가 오빠는 전구를 갈 거나 고장 난 문고리를 고치는 일 같이 엄청나게 어렵진 않지만 그렇다고 쉽지도 않은, 삶의 노하우가 필요한 일들을 잘한다. 농담 반 진담 반, 우리는 종수 오빠를 집사라고 부른다.



무슨 일이든 척척 잘하는 종수 집사

7. 면사랑

요즘 오빠의 식욕은 그 어느때보다 왕성하다. 특히 하루에 한끼는 꼭 면을 먹는다. 스파게티, 라면, 국수 등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길다란 것을 너무 좋아한다. 이러다가 귀국할때 썩음엔 오빠의 몸이 모두 면으로 바뀌어 있을 것 같다. 얼굴도 길쭉, 팔도 길쭉, 허리도 길쭉하게



메익이 말하는 '망고'



팀이 정해지기 전, 국내 훈련을 받으면서 여러 친구들에게 들은 말 중 하나는, '너랑 승연이랑 진짜 비슷해.'였다. 맞다. 좀비와 뱀파이어를 좋아한다는 이런 비슷한 취향을 갖은 여자는 처음 보았다.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 취향 등 여러 취향이 비슷하고 생각하는 접근 방식도 얼추 비슷하다. 관계에 있어서도 끈적이기 보다 쿨한 것도 비슷하다.

하지만 다르다.

승연이의 하루를 소개해볼까 한다.

만약, 양수나 종수의 하루를 소개한다고 한다면, '7시 30분쯤 일어나서 씨리얼을 먹고 씻고 까리따스로 출근한다.'라고 시작할 수 있겠지만 승연이의 하루의 시작을 언제부터라고 말해야 할지 굉장히 애매하다. 우선 나는 우리 팀에서 가장 늦게 잔다. 거의 1시에서 3시 사이에 잠들고 7시 40분쯤 승연이가 깨울 때 일어난다. 그리고 낮잠은 자지 않는다. 승연이는 나와 하루 총 수면시간은 비슷하다. 다만, 그것을 나누어 잔다는 것이 다를 뿐. 승연이는 10시에서 11시쯤 잠이 드는데 대략 3시쯤 일어나 아침식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른, 하루의 첫 끼를 그 시간에 시작한다. 혼자만의 새벽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6시쯤 다시 잠에 들고 까리따스 출근시간에 맞추어 다시



일어난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낮잠으로 부족한 잠을 보충한다. 하루 3 번 잠을 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그녀의 바이올리듬 덕에 우리는 한 번도 그녀의 아침식사를 본 적이 없고, 승연이와 나는 한 침대를 사용하지만 거의 혼자 쓴다고 할 수도 있는 날이 많다.

승연이는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들도 즐겁지만, 무엇보다도 그녀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기에 그 새벽시간에 저절로 눈이 떠진다고 한다.



망고를 좋아해 이름이 망고인 승연

우리 팀에서 막내지만 양수도 말했듯 나 역시 그녀를 마냥 어린 막내로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흔히 '막내'라는, 우리의 인식 속에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와 함께 당연하게 생각되는 틀이 있는데 승연이는 그냥 태어난 해가 우리보다 늦을 뿐 막내가 갖는 그 어떤 틀에도 해당되는 것이 없다.

'언니, 오빠들 알아봐. 자, 나는 ~ 이렇게 생각해. 다들 어떻게 생각해?'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짝 막히는 순간이 온다면 승연이는 먼저 우리에게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며 우리의 의견을 묻는다. 그 누구도 이 짝 막힌 상황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을 때 승연이는 막혀있는 상황에 물꼬를 터준다.

잠시 승연이가 집을 비울 때가 있었는데, 흔히 가정에서 엄마가 그러하듯, 언니와 오빠들이 그동안 무엇을 먹고살지 걱정이 된 나머지 그래도 오래 먹을 수 있는 카레를 해놓고 냉장고 안에는 빨리 먹어야 하는 반찬들 앞으로 꺼내놓고, 찻장에는 그래도 쉽게 빠르게 해 먹을 수 있는 식재료들을 정리해놓고 그녀는 집을 비웠다. 종수가 말한 엄마 같다는 부분이 아마도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행동이나 생각이 가끔 나보다 훨씬 더 어른인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런 그녀에게도 찾아보면 귀여운 구석이 저~~~~어딘가에 있긴 있다. 매일 한 번씩 '엄마 보고싶다'고 가족을 그리워하다가도

부모님과 통화할 때면 보고 싶었던 척도 하지 않고 오히려 쿨한 척하는 그녀를 볼 때면 귀엽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그녀, 채식을 하는 그녀에게 이렇게나 다른 3명과 함께 산다는 것이 아마 우리 중 누구보다 신선하거나 힘들거나 뭐 많은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린 아주 잘 살고 있다.



그래. 귀엽다 막내

형님들의 삼시세끼

레알 삼시세끼

김치를 만들자니 너무 번거롭고 일만 만드는 것 같아서, 김치나 깍두기를 대신할 만한 피클을 우리는 9월부터 만들어 먹었다. 처음 만들다 보니, 중국산 사과식초로도 만들어 봤다가 한국 양조식초로도 만들어 보다가 또 다른 한국의 2배 식초로 만들어 보다가 정말 갖가지 눈에 보이는 식초는 한 번씩 다 써봤던 것 같다.

(여러 식초들을 사용해보고 우리가 내린 결론은, 피클링 스파이스가 없는 상황에서는 사과식초가 그나마 제일 나은 듯하다.)



어쨌든 앞으로도 쪽 피클만 먹고 살 수는 없고, 이제 점점 피클도 질러가고 있다, 사실 집에서 걸어서 20분 정도 가면 있는 럭키마트에 김치를 팔긴 하는데, 이곳의 입맛에 맞춰진 터라 우리 입에는 너무나 달아서 우리는 프놈펜 한인식당에서 김치를 사다 먹었다. 하지만 사 먹는 것도 한두 번이고 그 맛도 점점 질러가고 있었다. 김치를 담그는 것은 일 년에 한 번 김장 담글 때가 떠올랐고 과연 우리가 그 맛을 낼 수 있을까 조금 두렵기도 했다. 그래서 내린 타협점이 깍두기였다. 승연이가 갈비찜도 했고 잡채도 했고 뭐 깍두기라고 못할까. 우리는 깍두기에 도전했다!

아무리 간소한 재료로 깍두기에 도전한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을 뒤져본 결과, 새우젓은 어느 레시피에도 빠진 곳이 없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새우젓을 구하기는..... 너무나 어려웠다. 새우젓 대신 그냥 멸치

액젓만 넣기로 했고, 고춧가루는 집에 있으니까 ok, 찹쌀도 집에 있었기에 찹쌀 풀도 준비 ok, 우리는 밖에서 무와 쪽파, 멸치 액젓만 사서 오면. 깍두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었다.

준비 시작!

무를 씻어 소금에 절여놓고 나는 의자에 앉아 마늘을 까기 시작했고, 종수는 양파를 썰고 승연이는 찹쌀을 믹서기로 돌리고 준비는 척척척 진행되었다.



우선, 우리는 시험 삼아 해보는 것이기에 적은 양을 시도했는데 인터넷에 나와있는 레시피는 우리가 준비한 양보다 훨씬 많은 양에 대한 레시피들이었다.

그냥. 우리는 . 오직. 감으로. 넣었다.

마늘, 양파, 액젓, 생강 넣고 믹서에 돌리고 찹쌀 풀도 만들어서 섞고 고춧가루도 샤샤삭 뿌려서 버무렸다. 누가 먼저 맛볼래. 무서웠다. 그냥 두려웠다. 나와 종수가 진짜 조금씩 찍어서 맛보았는데 우리 둘 다 눈이 커지고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우와 깍두기 맛이 나!!!!!!

우리가 알던 맛이 난다! 우리가 알던 맛!!!!!!!!!!!!!!

깍두기 이야기를 해본 김에 깍두기 말고 진짜 우리의 삼시세끼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한다.

우선, 우리의 아침은 개인플레이이다. 먹고 싶은 사람은 알아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꺼내어 먹는다. 나는 까리따스에 8시까지 가야 한다면 7시 40분쯤 일어나 씻고 사과 하나와 커피 한 잔을 까리따스로 가져가서 먹고, 승연이는 새벽에 일어나 무언가 엄청 많이 먹는다. 한 번도 나, 종수, 양수는 승연이의 아침식사를 본 적은 없다. 종수와 양수의 아침은 거의 우유에 마일로를 타고 씨리얼을 먹는다.



점심은..... 음 점심도 거의 개인플레이. 배가 고프면 알아서 냉장고에서 찾아서 먹는다. 밥이 될 수도 있고 씨리얼이 될 수도 있고 라면이 될 수도 있고. 빵이 될 수도 있고. 과일이 될 수도 있고.



저녁도 사실 항상 함께인 것은 아니지만, 아침 점심에 비하면 많은 저녁은 함께하는데, 승연이가 4~5 시쯤부터 우리의 저녁을 준비한다. 버섯샤브샤브? 비슷한 여기서는 과일에도 찍어 먹는 가루로 육수를 내고 집에 있는 야채를 송덩송덩 잘라 넣어 쪄유에 와사비를 섞어 국물 속에서 건진 야채들을 찍어 먹는다. 한국 음식이 고파질 때쯤, 승연이는 잡채, 갈비찜, 미역국, 두루치기, 두부김치 등 우리에게 한국 음식을 딱 하니 내놓는다.



뭔가 하기 귀찮은 날에는 집 앞 우덤네에 가서 미차를 사 오는데 지난 기수들이 말한 것처럼 그곳의 미차는 층안 나! 자극적이지만, 땡기는 그런 맛이다. 간식으로는 시장에서 사온 과일을 먹거나 그 과일들을 믹서기에 갈아서 쥬스로 마시곤 하는데, 요즘 가장 자주 마시는 쥬스는 수박쥬스와 망고바나나! 뭐 사과와 용과의 조합도 꽤 괜찮다.



사실 요새 폭 빠진 식사 대용은 빵인데, 그중에서도 바게트이다. 바게트를 반으로 나눠 프라이팬에 구워 그 위에 케첩을 바르고 양파를 썰어 넣고 만들어 놓은 피클도 썰어 넣고 그 위는 모짜렐라 치즈를 뿌려 치즈가 녹을 때까지 팬에서 데우면, 간달 우리 집에서만 맛볼 수 있는 아띠 바게트 피자가 완성된다. 진짜, 정말, 괜찮다. 맛있다. 한국 가서 취업 못하면 우리끼리 이거 장사나 해보자며 갖가지 부재료를 바꿔가며 메뉴 개발에 한창이다.



메이크

우린 YDP입니다

새로워진 Atti Time

이번 달 우리 건달 팀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바로 YDP 수업을 개인이 하루씩 맡아서 하는 책임제(?)수업 방식으로 바꾸었다.

Mon	Tue	Wed	Thur	Fri	Sat	Sun
	1	2	3	4	5	6
	영어수업	한국어수업	영어수업	까리따스 중간평가 탄 송별파티	이은율에서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자유시간
7	8	9	10	11	12	13
대청소	CDP	독립기념일(휴일)	CDP	까리따스 가드닝	시아누크빌	
영화수업 (부산행) 팀 회의	헤잉헤잉 축구장 ~		영어 수업 (겨울왕국 더빙) 팀 회의	HANG OUT (따꼬마의 축제)		
14	15	16	17	18	19	20
시아누크빌		CDP	CDP	CDP (티,쓰라이닉 집)	대청소 중간평가준비	프놈펜대학교& 뿔곡 소풍
		쑀쑀-한국어수업	영어 수업 회의 (팀규칙 수정)	메일-풍선아트		
21	22	23	24	25	26	27
CDP (드러꾼 수학)				LIBRARY 프놈펜 IBC	중간평가 준비	중간평가 준비
쑀쑀- HANDICRAFT	메일-KOREAN (LIFE STYLE)	쑀쑀-KOREAN	망고-ENGLISH			

기존에는 모든 수업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진행하면서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이제는 각 요일마다 수업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두어 그 책임자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바꾸었다.

월요일에는 쑀쑀가~

화요일에는 메익이~

수요일에는 쑀쑀가~

목요일에는 망고가~

금요일에는 건달들이 같이~

우선 월요일은 내가 Handicraft 수업을 진행한다.

Handicraft 수업은 카리타스에서 원하는 수업으로 학생들이 공예품을 만들며 친목 도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이다.



풍선 아트를 따라 하는 학생들

내가 한 Handicraft 수업은 실반지, 실 팔찌를 만드는 수업이었다.

우선 수업에 필요한 물품들인 두꺼운 실과 본드 등 여러 재료를 프놈펜에 있는 센트럴 마켓에서 사 왔다.

첫 수업에 만드는

Handicraft 는 바로 한때 한국에서 유행하던 실반지를 만들기로 했다. 만드는 동영상을 보여주고 앞에서 내가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팔찌 만들기

그런데 내가 준비한 실반지 만드는 방법이 어려워서 학생들이 힘들어했다.

그래서 학생들은 실반지를 만들다가 너무 어려워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반지를 만들거나 팔찌를 만들었다.....



나보다 훨씬 잘 하는 '러티'!

두 번째 수업에는 실로 만드는 팔찌를 만들었다 1.

이번에는 팔찌를 쉬운 방법으로 만들 수 있도록 알려 주었다.

그런데...이번에는 너무 쉬워서 학생들이 빨리 만들고 또다시 자신만의 방법으로 다른 팔찌를 만들고 있었다...ㅠㅠ



아주 잘 만드는 '쇼' 스승님

다음부터는 다른 Handicraft 만 들어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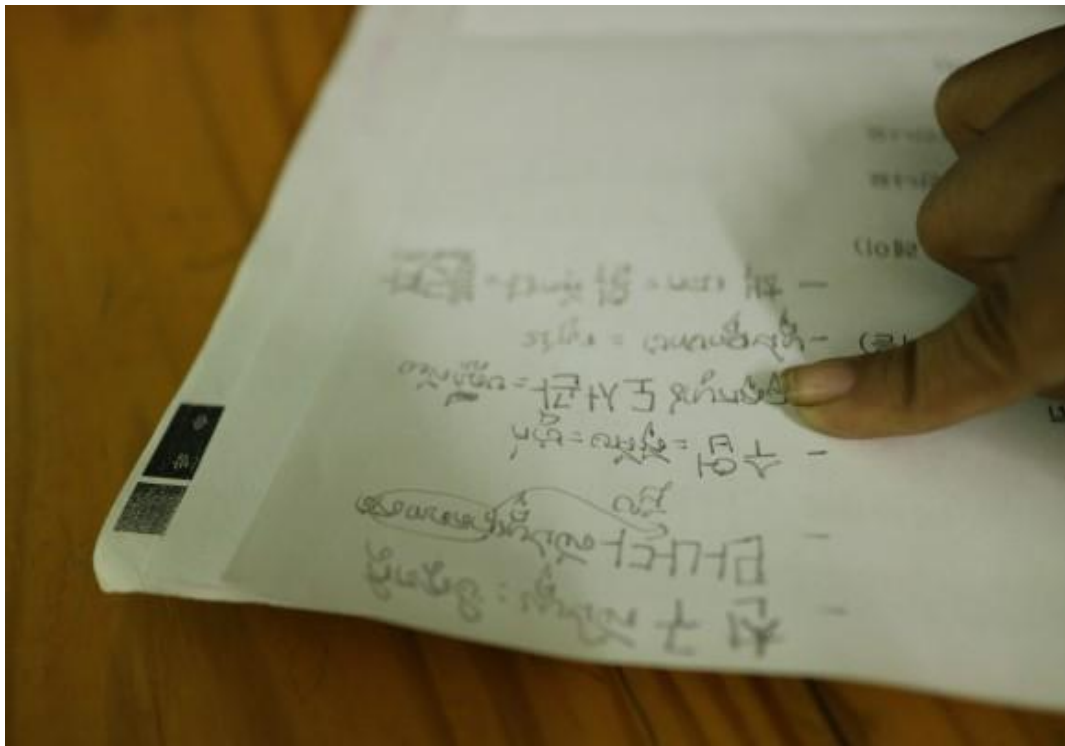
화요일에는 메익 누나가 준비하는 한글 수업을 진행한다



메익 누나의 한글 수업~

누나는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일상에 관한 사진들을 받아 수업을 준비하였다. 이번에 진행했던 누나의 수업 주제는 한국 학생들의 일상이었다.

한국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와 수업, 먹거리 등을 설명하며 한글 단어를 알려 주었다. 그리고 가족 관계에 대한 단어를 알려주었다. 예를 들면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언니, 누나, 오빠, 형 등.....



열심히 필기하자~

그런데 학생들은 한국의 문화(?)인 언니,오빠 (여자가 부르는 말)/ 누나, 형 (남자가 부르는 말) 에 대해 이해 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언니와 누나의 차이를 어려워하는 학생들

캄보디아는 손윗 사람을 부르는 단어가 부르는 사람의 기준으로 나누지 않아서 많이 헷갈려 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많이 물어보면서 한국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누나가 진행을 잘 해서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을 잘 하고 많이 배우고 갔다.

수요일에는 수수 형이 준비하는 한글 수업을 진행한다.
이번에 형이 진행하는 수업은 한글 회화였다.



쭈쭈 형의 한글 수업~

우선 첫 수업 시작을 저번에 배운 안녕하세요(아따맘마 ost)를 부르며 시작했다.

노래를 부르는 우뜸~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 있어요~ 다시 만나요~

학생들은 이제 잘 따라 부르며 노래를 외우기 시작했다.

노래를 부른 후 본격적인 한글 회화에 대해 수업을 진행하였다.

EX, 안녕하세요~,

이제는 학생들이 열심히 따라 하면서 한글을 알아가는데 재미를 느끼는 것 같다.

목요일에는 망고가 진행하는 영어 수업을 한다.



망고의 영어 수업~

이번에 망고는 영어 애니메이션의 대본을 준비하였다.

영어로 된 신데렐라 애니메이션을 보고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를 따라 하면서 대본을 읽는 수업이었다.



열심히 집중하는 학생들

대본을 따라 읽다가 대본 속 영어 문법들이 있으면 문법들을 설명해 주면서 수업을 진행했다.

학생들이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의 대화를 재밌게 따라 하면서 수업을 순조롭게 했다.



앞으로 금요일에는 공동으로 함께 진행할 프로그램이나 수업 등을 하기로 하였다.

예를 들면 풍선아트, Library project , Cooking class, Hang out 등 여러 가지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풍선 아트



Cooking class



Hang out

이번 달에는 Hang out 과 풍선아트 Library project 를 진행하였다.
 Hangout 에는 따끄마의 축제를 다녀왔고, 풍선아트는 양산에서 배운 것들을 활용하여 수업을 했다. 그리고
 Library project 에는 IBC 서점에 가서 학생들이볼만한 책들을 사러 갔다.



서점에서 도서관에 놓을 책을 고르는 중

이번에 바뀐 방식으로 우리들 수업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노력하며 열심히 수업을 진행할 것이다.

쫂쫂

우린 CDP도 준다

우린 CDP도 한다

CDP 친구들

우덤, 러티, 띠

우리의 CDP 친구들이다. 항상 우리가 보인 호의보다 우리가 다 품을 수조차 없을 정도의 호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친구들인데, 이번에 모두 농부가 꿈인 이 친구들에 대해 소개해볼까 한다.



우선, OUDOM.



ㅋㅋㅋㅋㅋㅋㅋㅋ완벽한 설정샷

그는 현재 까리따스 학생회 같은 조직을 이끌어가고 있다. 그만큼 모든 학생들과 친한 것 같고, 수업이 없을 때에도 까리따스를 자주 찾는다. 그리고 우리의 아띠타임도 아마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했던 것 같다.

우덤은 청개구리 같다. 맛있냐고 물어보면 입가에 살짝 미소를 띠며 '엇츨안~(맛없어)' 이라고 말하면서 계속 내 것을 뺏어 먹는다. 모토를 탈 때 조심하라고 하면 속도를 더 낸다. 비가 와서 길에 많은 웅덩이가 생겼을 땐 조용히 옆으로 와서 나를 웅덩이로 밀며 틈만 나면 장난을 친다. 그러다가도 비가 오면 가방에서 우산을 꺼내 우리에게 주고 본인은 그냥 비를 맞는다. 올림픽경기장에 다 같이 놀러 나갔을 때에도 갑자기 번개 치고 천둥치고 폭우가 내렸는데 그날도 정작 본인은 비를 맞으면서 본인의 우비를 우리에게 내어주며 우덤은 우리가 우비 아래에서 비를 피할 수 있게 두 손 높게 들어 받치고 있었다. 우리를 쥐었다 놔다 아주 그냥 밀당의 귀재다.



할머니 모자 뺏어쓰고 일하는 우덤



왜 그렇게 신이 났을까. 분명 우리 놀릴 생각 중일 듯.



뭐랄까 그는 그냥 자유로운 영혼이다. 필드에 가기로 한 날인데 가끔은 말없이 나오지 않기도 하고, 혼자 그냥 필이 꽃히면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남의 집 나무에 열려있는 먹을 수 있는 열매들을 보면 주저 없이 따서 입안으로 직행,와그작 베어먹는다. 길가에 널리고 널린 풀잎은 띠의 입이 심심할 때면 띠의 입으로 들어간다. 그런 그를 가만히 지켜보면, 참 자유롭다는 느낌을 받는다. 마냥 웃고 노는 것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가 CDP의 리더였다. 그는 아마 까리따스 직원 우덤이 우리와 함께 필드에 나가지 않는 날에는 우리의 농사 선생님이 된다. 이 땅에 무엇을 심으면 좋을지, 밭은 어떻게 갈아야 하는지, 비료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모르는 것이 없고 심지어 농기계도 잘 다룬다. 기계를 다룰 때면 그의 얼굴에서는 웃음보다는 진지한 표정을 볼 수 있는데 그냥 멋있다. 아, 요새는 저녁에 축구 경기가 있기 때문에 축구 유니폼을 입은 그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것도 그냥 멋있다. 얼마 전에 띠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승연이와 나는 상상해보았다. 띠가 남자친구라면 어떤 느낌일까.



못 다루는 농기계가 없음



띠 집에 놀러 간 날! 띠도 역시 조카바보다. 농사하다가도 조카의 자장가를 부르며 흥얼거린다.

러티 RETHY



CD 학생 중 유일 여학생이다. 우릴 향해 웃어주는 미소가 예쁜 러티. 항상 필드에 나가면 옥수수가 갑자기 간식으로 오거나, 양념된 귀뚜라미 튀김이 갑자기 내 앞에 있거나 또 다른 날은 바나나 튀김이, 사탕수수즙이, 슬러쉬 같은 달달한 후식이. 근데 알고 보니 이게 거의 다 러티가 사 오는 것들이었다. 자신이 먹고 싶다고 절대 한 개만 사 오지 않는다. 항상 우리의 것도 그녀의 손엔 함께 들려있다. 어느 날은 자기가 먹고 싶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에게 맛 보여 주려고 사오기도 한다. 우덤이 나에게 장난치려고 할 때면 미리 나에게 와서 눈치를 주기도 하고 길을 걷다가 모토나 차가 뒤에서 오면 살며시 내 팔을 잡아당긴다. 마을에 일을 나갔을 때 길가에 꽃이 피어있으면 한 송이 따서 내 귀에 꽂아준다. 이런 러티가 난 너무 귀엽고 예쁘다. 그렇다고 항상 귀엽기만 한 것은

아니다. 작은 체구이지만, 일을 할 때면 입을 양다물고 날카로운 낫을 번쩍 들고 똑 부러지게 일을 한다. 나와 눈이 마주칠 때면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환하게 웃어주는 러띠. 나도 그녀에게 그런 웃음을 보여주고 싶은데 내 웃음도 그녀가 느낄 때 그만큼 밝은 미소일까



밭 만들기 프로젝트

캄보디아에서의 하루는 CDP 로 시작한다.
쉽게 말하면 밭을 갈면서 시작한다는 뜻이다.
쉽지 않았던 밭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 조금 설명해 볼까 한다.



마을에서 툽툽을 타고 30~40 분쯤 가면 우리가 활동하는 마을이 나온다.
그 마을의 두 농장에서 우린 밭을 일군다.
처음엔 비료를 만들었다. 그냥 비료가 아닌 천연 비료이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소똥을 퍼서 옮긴다. 다음에 쌀겨를 섞는다.
그 다음 나무에 있는 잎을 뽑아 자른 다음 섞는다.
그리고 그 위에 재를 뿌린다. 다시 그 모든걸 잘 섞어 준 다음
물을 뿌리고 10 일 정도 숙성시키면 완성이다.



비료를 숙성시키는 동안 우리는 밭을 일군다.
땅을 파고 모양을 만들고 배수로를 만든다.
즉...하루 종일 땅을 파는 작업을 한다는 거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터지고 다시 또 잡히고 터지는 그런 상황에서
신기하게도 우린 웃는다.
힘들지 않은 건 아니지만 물집을 신기해 하고
일을 긍정적으로 한다.
나 또한 팔과 허리와 어깨의 운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게 된다.



특히나 같이 일하는 우땀과 렉띠, 그리고 띠와 함께 해서 더욱 즐겁다.
장난도 치고 서로 쉬라고 격려도 하면서 우린 밭을 일군다.
그러는 동안 우리 밭은 싹이 돋아났다.
그리고....우린 다시 밭을 일군다.
두번 째 마을인 스피нту모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 중이다.
음... 밭갈구기 프로젝트는 아마도
우리가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될 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CDP 활동은 여기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많은 기억들 중 가장 오래 남을 것 같다.
농사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캄보디아 식 밭을 가꾸기는 쉬운 것이 아니었고
그 만큼 크게 보람도 느낄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자 그럼 오늘도 즐겁게 밭을 만들어 볼까?
Fighting !!

By 쑤쑤

제1구역, 캄보디아

제1구역, 캄보디아

뚜얼슬랭 박물관

주말을 맞아 장을 보러 프놈펜에 가는 김에 뚜얼슬랭 박물관에 다녀왔다.



뚜얼슬랭 박물관(Toul Sleng Genocide Museum)은 원래 학교였지만 크메르 루즈 정권 시절 암호명 'S-21'이라는 이름으로 고문, 심문 시설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2만여 명에 달하던 죄수 중에 불과 일곱 명만 살아남았다는 이 곳에 들어서자 바깥의 어수선힌은 사라지고 공기 중에 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모든 방문객들이 침묵한 채 오디오 설명을 듣고 있었다. 자백을 유도하기 위한 고문 도구들, 녹슨 침대, 그리고 전기 철조망들에게서 한낮인데도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1970년대 초 캄보디아는 정세가 매우 불안정했다. 베트남 전쟁의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해 미군이 캄보디아에 용단 폭격을 퍼부었기 때문이다. 1973년 베트남 전쟁이 휴전협정을 맺으며 미국이 떠나자 크메르루즈는 정부의 저항을 꺾고 수도 프놈펜을 장악한다. 처음에는 크메르루즈가 온건한 정책을 펼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으나 이는 곧 오래지 않아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도시민들은 추방 당해 거대한 집단 농장에서 굶주려 가며 강제 노동을 해야 했다. 화폐, 교육, 사유재산, 종교는 금지되었다. 폴 포트 정권은 길지 않은 집권 기간 동안 무려 100만~300만 명의 국민들을 살해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폴 포트, 캄보디아 장악](#) (죽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세계 역사 1001 Days, 2009. 8. 20., 마로니에북스)



영화 <동주>에 나오는 송몽규에게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던진다.
"국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가 무엇인가?"

송몽규는 이렇게 대답한다.
국토와 국민, 그리고 주권

영화 <동주> 속의 송몽규와 윤동주는 일본에게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해 투쟁했고, 광복을 눈앞두고 잔인한 신체 실험의 부작용으로 목숨을 잃었다. 두얼슬랭 박물관을 돌아보며 이곳에서 목숨 바쳐 싸웠을 캄보디아의 송몽규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또, 저 안에서 손에는 쇠고랑을 차고 창문 밖으로 '별 헤는 밤'을 바라보았을 캄보디아의 윤동주들을 상상해 보았다. 피로 물든 칼날에 무참히 베어나갔을 그 젊음들이 눈 앞에 스쳐 지나갔다.

[번외] 그리고 나는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켜다. 일제강점기만큼이나 국가의 주권이 바로 서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 시국을 만난다. 멀리 떨어진 타국에서 내가 국가를 위해, 나의 학교를 위해 취할 수 있는 투쟁의 방식은 무엇일까, 나에게 주어진 길은 무엇일까 고민해본다. SNS 배경화면도 바꿔보고, 각종 언론사 페이지를 돌아다니며 기사들도 훑어본다. 나를 위한 작은 시위를 벌인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클릭은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written by 망고

제1구역, 캄보디아

시아누크빌(Shianoukville)

캄보디아에서는 '본옴뚝'이라 불리는 물 축제가 하반기에 크게 열린다. 몇 주 전부터 깎달과 프놈펜 강변에서 연이어 카누 대회가 열리더니, 이번 주에는 화끈하게 국가에서 연휴까지 주면서 축제를 거창하게 벌였다. 팀원들 모두 카누 경기에는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다 싶어 시아누크빌(Sihanoukville)이라는 바다마을에 가보기로 했다.



씨엠립 갈 때와 마찬가지로 벤을 타고 이동했다. 어느 나라든 긴 연휴를 맞아, 잠시 일상을 놓고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도로를 가득 메우는 것은 마찬가지로인가 보다. 4~5 시간이면 가는 거리를 6 시간이 넘어서 도착했으니 말이다. 좁고 불편한 좌석에 앉아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벤 안에서, 우리는 여행을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지칠 대로 지쳐 버리고 말았다.



휴게소에서 잠시 내려 시원한 커피를 마시면서 목을 축이려고 했더니, 아무리 기다려도 내 차례가 오지 않았다.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이곳에서는 계산대에 먼저 돈을 들이밀어서 약착같이 내가 먹을 음식 값을 지불해내야 한다는 것을 10 분이 넘도록 기다리고 나서야 알아챘다. 주문을 받는 점원조차도 누가 먼저 왔는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고려하지 않고, 눈앞에 서있는 고객의 주문을 먼저 계산하고 있었다. 그것도 모르고 나는 "내가 서있는 곳이 줄이겠지", "언젠가 내 차례가 오겠지" 하면서 넋 놓고 기다렸던 것이다.



멀미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서 멍해지고, 복잡한 생각을 중지시킬 잠도 모두 소진됐을 즈음 우리는 드디어 시아누크빌에 도착했다. 모래사장에 발을 딛고 바라본 바다의 경치는 벤과 휴게소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말끔히 날려 주었다. 비수기라서 그런지 아니면 덜 알려진 관광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아누크빌의 바닷가는 딱 불쾌하지 않을 만큼 봄볕다. 또 군데군데 비어있는 관광지 특유의 공허한 공기를 시원한 파도소리가 메우고 있었다. 따스한 햇볕이 들고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곳이 흰히 보이는 곳에 우리는 미리 예약해둔 숙소를 발견했다. 매우 흡족한 선택이었다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생각했다.



시아누크빌에는 동양인보다 서양인 관광객이 더 많았다. 몇 달 동안 까만색 머리카락과 눈동자만 보아오다가, 오랜만에 명도 높은 외양의 서양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자니 상당히 어색했다. 하지만 오랜만에 음식 선택지가 많아져 우리는 신이 났다. 시아누크빌 길거리에서는 중동 음식, 일본음식, 동남아 음식, 유럽 음식 등 전세계 요리를 모두 만날 수 있다. 저렴하면서도 다양한 음식점들 중 우리는 어디를 들어가야 하나 한참을 고민했다. 결국 선택한 것은 캄보디아에서 흔해 빠진 피자였지만.



하루 종일 쭈뼛 굵은 배를 두둑이 채우고 바닷가를 천천히 거닐며 한껏 여유를 즐겼다.
밤이 되어 변화가에는 네온사인이 켜지고, 오랜만에 접하는 향락과 유흥의 장면들에
우리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래, 잠시 쟁기와 소똥 생각은 접어두기로 하자.

written by 망고

시아누크빌, 두번째 이야기

시아누크빌에서의 둘째날이 밝았다. 우리는 배를 타고 이곳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코롱섬에 들어가기로 했다. 하루에 한번씩은 꼭 비가 오는 요즘이었다. 하지만 걱정했던 바와 달리 하늘은 아주 화창했다.



승선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도희언니와 나의 눈을 사로잡은 사람이 있었다. 물려드는 인파 속에서 혼자 티켓을 확인하고 카리스마 넘치게 질서를 정리하던 안내원 언니였다. 햇빛에 그을린 피부에서 바다의 거칠고 시원한 기운이 풍겨져 나왔다. 어깨에 새긴 타투하며, 목에 무심하게 걸친 약세서리하며, 마치 캘리포니아에 살며 서핑이 취미인 털털한 걸크러쉬 언니 느낌이랄까.



아침밥으로 작은 빵이 하나씩 제공됐고, 우리는 대충 허기만 달래고 뱃머리로 나와 바닷바람을 머리 휘날리게 맞았다. 오랜만에 짙내나는 바람을 맞으며 우리는 모두 말없이 시원한 자연선풍기를 즐겼다.



난생 처음 스노클링을 해봤다. 바닷물이 이렇게 짙 줄 몰랐다

스멀스멀 멀미의 기운이 올라올 때 즈음, 코롱섬에 도착했다. 섬을 천천히 거닐었다. 한적하지만 쾌활한 섬이었다. 사람들의 들뜬 말소리와 파도소리만이 우리의 귀를 적셨다.



돌아가는 배가 뜰때까지 세시간 정도 섬에 머물 수 있었다. 선물과 같은 여유가 찾아왔다. 나는 수영을 하다가 해먹에 누워 햇빛을 피하며 낮잠도 잤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든, 캄보디아에서든 나에게 이런 '여유'는 앞으로 찾아올 위기의 복선과 같았다. 그래서 항상 되뇌여야 했다. 지금 이 여유를 즐겨야한다고, 다가오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은 잠시 미뤄두자고.

살아가면서 불행한 순간들이 있기에 비로소 때때로 찾아오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정신없이 바쁜 일상이 있기에 때때로 찾아오는 여유가 값진 법이다. 아직은 이런 여유마저도 일상의 일부라고 받아들일 만큼 나의 시간은 느리지 않은 것 같다. 나의 시침과 초침은 내 안이 아닌 바깥을 향해 있고 그래서 언제나 변화에 취약하고 위태롭다.



굽어진 선체의 모양에 따라 정사각형이 아닌 사다리꼴 모양을 한 이 배의 창문처럼, 나 또한 안과

바깥의 조화로운 균형을 찾고 싶었다.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그래도 괜찮다. 아직 시계의 배터리는 충분하다.

숙소가 있는 세렌디피티 해변에 돌아와 망고를 샀다. 너무 익지도, 그렇다고 너무 설익지도 않은 맛있는 망고였다.



written by 망고

개미 에세이

뚝

11월은 나에게 조금은 버거운 한달이었다. 캄보디아에 와서 힘든게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힘들이었다. 이 사정이 내가 캄보디아에 온 것에 대한 후회와 많은 고민들을 안겨주었고 나는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었다.

정신을 차리게 해준 건 우리 깐달건달 팀이었다. 애들에게 내 맘을 털어놓고 서로 이야기를 하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 그리고 내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나는 팀에게서 가족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마음이 편해지고 더욱 국제자원 활동에 정진할 수 있게 되었다.

내적으로 편하다는 건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일단 무슨 일이든 크게 맘에 담아 두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함께 하는 것이 즐겁고 더욱 최선을 다 하는 것 같다.

11월 중순에 이르게 되면서 나는 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같은 집의 모습이라도 벽과 지붕, 그림, 구조, 모양 등을 세세하게 보게 되었고 집 마당의 나무들을 유심히 보게 되었다. 개미가 지나가는 모습, 나무에 열린 열매의 모습, 하늘과 구름, 구름이 흘러가는 방향, 그리고 우리집의 고양이가 노는 모습을 천천히 길게 보게 되었다.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습들이 정말 아름답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이 생각난다. 비로소 보이게 되니 폰이 없어도 전자기기가 없어도 조금 심심하더라도 미소가 나오는 것 같다.

이런 행동은 단순히 자연을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팀이나 까리타스 사람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인 것 같다.

매일 보는 팀원도 다시 보게 되고 다시 살피고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니 못 보던 것을 보게 된다. 그걸 보니 그 사람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궁금해지기도 하고 내가 그 행동을 따라하게 되기도 한다. 이런 것이 나는 즐겁고 그래서 나의 기분은 캄보디아에 온 뒤로 최고라고 할 수 있다.

캄보디아에 오게 되면서 나는 3가지를 나 자신에게 약속했다.

첫째는 금연! 두번째는 살을 빼는 것, 세번째는 영어와 크메르어 실력의 향상이다. 그런데 매일 운동을 하다 보니 3달째 되는 지금 18kg이 빠졌다. 그래서 목표를 바꿨다. 살을 그만 빼고 몸을 한번 만들어 보기로. 그래서 나는 우리 집을 중심으로 운동할 만한 곳을 찾아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 모알똌레로 불리는 강변은 너무나 멀고 도로 상황이 안좋아 달리기를 하기에 힘들었다. 그러던 도중 집에서 30분쯤 거리가 되는 곳에서 헬스클럽을 발견하게 되었다. 샤워시설은 없지만 운동기구들이 많았고 크게 비싸지 않았기에 한달 등록을 했다.

헬스장의 많은 캄보디아 사람들은 다 옷을 벗고 운동을 한다. 물론 몸들은 대부분 다 좋다. 나도 그러고 싶지만 아직 내 몸은 살덩어리라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 그래서 12월이 끝나고 1월1일이 되는 날 반드시 옷을 벗고 운동을 하리라 다짐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여러가지를 구상중이다.

활동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정리가 되지 않았다. 간사님들의 중간평가 이후 나는 도서관 프로젝트와 학생들과의 수업에 대해 항상 생각하고 있다. 우리의 활동이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볼 생각이다. 단 한명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뭐든 다 해볼 생각이다. 잘 할수 있겠지?

어느덧 2달밖에 남지 않았다. 보고서도 다음 달이 마지막이 되겠지. 최근에 들어서야 활동이 점점 끝나가는 것을 느낀다. 나는 캄보디아에서의 좋은 친구였을까? 부족하다면 무엇을 더 노력해야 할까? 생각이 깊어지는 밤이다.

그래도 내 이름처럼 언제나 쑤쑤(파이팅)하자!! 쑤쑤!!

꼬꼬

이번달은 다른 달 보다 나에게 뜻깊은 달이었다.

팀원들에게 많이 의지하게 됐고 팀원들에게 내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한국에서와는 달리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누군가 나에게 '너 자신의 옷을 입어라'라고 한 적이 있었다.

내 자신의 옷을 이곳에서 조금(?) 찾았고 앞으로 계속 찾아 나갈 것이다.

-빛이 없어 어두운 것이지 어두워서 빛이 없는 건 아니기에, 빛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어도 어둠이 빛을 몰아낼 수는 없는 것이기에, 우리의 절망과 슬픔은 끝내 소망과 기쁨에 무릎을 꿇으리라-

<시를 읽은 그대에게>(정재찬)

망고

우리는 슬픔을 실컷 슬퍼한 끝에 그것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우는 길 밖에 없으며, 그리고 그렇게 배운 무엇인가도 다음에 닥쳐오는 예기치 못한 슬픔에 대해서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상실의 시대> 중에서

그러니 뒤도 앞도 보지 말고, 마음껏 슬퍼하자!

메이쿠

중간평가 reflection에서도 말했듯, 나의 요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이 순간이다. 할 말이 없다. 뭔가 뼈까번쩍한 말이 나와야 할 것 같은 지금 이 보고서에서도, 일상적인 나눔을 하는 순간에도 별로 할 말이 없다. 오늘은 12월 10일이다. 저녁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나는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 에세이를 써볼까 한다. 아마 이번 달 에세이는 나의 의식의 흐름대로, 나에 대한 이야기를 써볼까 한다. 이 정리되지 않은 정신 상태로 인해 읽는 이로 하여금 어이없음을 초래할 수 있음을 먼저 밝힌다.

원래 글보다는 영상이나 사진같이 색채가 있고, 눈으로 바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좋아했다. 하지만 이곳에 와서 정말 할게 없어서 책을 읽었던 순간들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이곳에서만큼은 영상보다는 책이 더 재미있다는 것을 느꼈던 순간들이 있다. 책이 너무 재밌어 정전이 된 집에서 랜턴을 키고 책을 보기까지 했으니 말이다.

리액션이 크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옆 사람을 정말 깜짝 놀래킬 만큼인 줄은 팀 생활을 하며 느낀다. 마트에서 식혜를 발견하고 좋아했지만 그 리액션만으로도 승연이는 정말 깜짝 놀라 심장이 떨어질 뻔 했다. 중간평가가 끝나고 간사님은 이렇게 짧고 강하게 리액션 하는 사람은 처음 보았다고 했다.

직설적이다. 돌려 말하기는 못한다. 성격도 급하고 답답한 건 못 참기에 그냥 느끼는 대로 바로 말한다. 그래도 조금의 눈치는 본다. 내 기준에, 상대방이 상처입지 않을 선까지는 고려한다. 이걸 혈액형별 성격유형을 믿는 나로선 우리 팀에 o형과 b형만 있음에 감사한다. a형이 있었다라면 아마 나의 직설화법에 속앓이를 하지 않았을까 잠시 상상해보았다. 아, 참고로 나는 AB형을 좋아한다. 그냥 잘 맞는 친구들은 다 AB라서 이런 환상이 생긴 것 같다.

우유를 좋아하는 것 같다. 한국에서는 우유에 탄 미숫가루가 아침이었고 아메리카노보다는 라떼를 좋아한다. 우유와 함께 먹는 시리얼도 좋아한다. 하지만 흰 우유는 먹지 않는다. 흰 우유는 맛없다.

시장을 좋아한다. 한국에서는 집 앞 이마트에 적어도 2일에 한 번은 갔다. 친구는 말했다. 이럴 거면 그냥 이마트 캐셔나 하라고. 어쨌든 특별히 살 것이 없어도 그냥 갔다. 식품 코너, 전자제품 코너, 그냥 다 돈다. 남들이 말하는 산책이 나는 실내일 뿐이다.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혼자서 우리 마을 시장까지 걸어간다. 시장은 집에서 30~40분 걸으면 나오는데 길 가다 있는 사원들도 하나씩 들러 나무 그늘 아래에 있는 벤치에 앉아 멍 때리다 보면 거의 1시간 걸린다. 아무 목적 없이 시장에 가서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사

고 아니면 그냥 한 바퀴 돌고 돌아온다. 나에게 시장은 쇼핑과는 의미가 다르다. 그저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 물건을 사는 사람들, 나와 있는 물건들을 보는 재미로 시장에 가는데 나에게 스트레스 푸는 법을 물어본다면 나는 아마 혼자 시장에 가는 일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코난, 워킹데드를 챙겨본다. 아직까지도 코난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된다. 아마 이 글을 보며 코난이 아직도 하나씩 반응을 비추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내일은 토요일인데 토요일 아침에 아마 코난 덕후들 블로그에 이번에 방송될 843화가 뜰 것이다. 극장판, 비공개 방송분 거의 다 봤다. 코난 때문에 일본어를 배울까 생각해봤다. 워킹데드도 시즌7이 현재 방영 중이다. 8화가 방송될 예정이고 나는 등장인물 중 글렌을 가장 좋아했는데 시즌7에서 죽게 되어 너무나 아쉽다.

부추 듬뿍 넣은 오리불고기가 먹고 싶다. 우리 가족은 외식하면 거의 메뉴가 정해져 있다. 후보가 다양하지 않다. 단골만 판다. 그 중 하나가 오리불고기인데 하.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으니 또 먹고 싶어진다. 어쨌든 이곳에는 오리고기는 정말 많은데 오리불고기는 없다. 오리불고기가 먹고 싶어서 이곳에서 만들어볼까 잠깐 생각한 적 있는데 아마 이곳 오리고기로는 그 맛은 불가능할 것 같다. 한국 가면 바로 가족들과 오리불고기 먹으러 갈 것이다.

아! 요새는 사탕수수에 빠져있다. 캄보디아 말로 사탕수수 즙은 '뚝 엄빠오'. 매일 하나씩 먹는 중이다. 식혜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사탕수수 즙을 낼 때 라임을 넣지 않으면 맛이 식혜와 비슷해 식혜 대용으로도 찾고 더워도 찾고 배고파도 찾고 그냥 사탕수수는 진리다.

한국으로 귀국하면 남은 한 학기를 위해 학교로 복학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학교, 우리 학과의 졸업 조건은 논문이 아닌 독후감이다. 독후감을 써야 하는데 난 아직 단 한 권도 쓰지 않았다. 게을러서 못 쓴 거겠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지, 뭐 이런 추상적인 목표는 없었다. 다만 졸업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목표가 하나 있었다면, 이곳에서 적어도 5권의 독후감을 쓰는 것이었다. 졸업 독후감에 해당되는 4권의 책은 읽었지만 아직 독후감은 시작도 못 했다. 벌써 반이 지났고 남은 시간 동안은 꼭 독후감을 다 완성하고야 말겠다.

뭔가 에세이에 하나의 주제로 글을 써나갈 만한 고민일 것 같은데 요즘 내가 자원봉사자로서 잘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어쩌다 한 번씩 생각해보긴 한다. 거실 불을 켜는 곳에 '늘 질문합시다.'의 7가지 질문이 붙어있다. 그러나 늘 이 질문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쩌다, 문득 이곳에서 나는 자원봉사자로서 잘 살고 있는가? 라는 물음이 떠오를 때가 있다. 우리 팀은 이곳에서 정말 잘 살고 있다. 잘 먹고 있고, 잘 자고 있고, 잘 살고 있고 물론 건강하다. 잘 적응했다. 환경에 대한, 생활에 대한 면에서는 확실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모두 자원봉사자로서 잘 지내고 있는가 라는, '자원봉사자로서'의 수식어가 붙는다면 그 대답에 있어서 만큼은 자신이 없다. 사실 모르겠다. 잘하

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항상 이 물음이 떠오를 때면 오래 생각하기 싫어서 미루고 미뤘는데 결국 이 에세이를 쓰는 지금까지도 모르겠는 거 보면 아마 끝날 때까지도 모를 것 같다.

저번 보고서부터 오늘까지 약 한 달 동안 나는 3통의 편지를 받았다.

하나는 팀원에게, 하나는 과거의 나로부터, 하나는 간사님에게.

“도희에게 많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어.”

“나는 너를 믿어.”

“그대가 아름답지 않을 때는 없었다. 미쳐 되돌아보지 않았을 뿐.”

사실 간사님께 받은 엽서는 처음에 받고 이게 무슨 의미지? 내 머릿속을 물음표로 만들어 놔다.(간사님, 아무래도 저와 간사님의 감수성의 레벨이 다른가 봅니다....ㅎㅎㅎㅎ) 어쨌든 해석해냈고 세 통의 편지에 담긴 뜻이 너무 예뻐 진득하게 무엇하나 간직할 줄 모르는 내가 이 세 통의 편지는 소중히 간직해볼까 한다.

#11월 30일, 홀로 마을을 돌아다니며 포착한 우리 마을 사원

